

예배기원 ..... 인도자

“한가위를 맞이하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다 함께

기도 ..... 말은이

성경봉독 ..... 시편 69:30 ..... 인도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설 교 .....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 말은이

찬 송 ..... 66장 다 감사드리세 ..... 다 함께

주의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 금 까 지 지 - 내 온 것 주 의 크 신 은 - 헤 라  
2. 몸 도 맘 도 연 - 약 하 나 새 힘 받 아 살 - 았 네  
3. 주 님 다 시 뵈 - 올 날 이 날 로 다 - 가 와

한 이 없 는 주 - 의 사 랑 어 찌 이 루 말 - 하 라  
물 붓 듯 이 부 - 으 시 는 주 의 은 혜 축 - 하 다  
무 거 운 짐 주 - 께 말 겨 벗 을 날 도 멀 - 잤 네

자 나 깨 나 주 - 의 손 - 이 향 상 살 퍼 주 - 시 고  
사 랑 없 는 거 - 리 에 - 나 힘 한 산 길 헤 - 맬 때  
나 를 위 해 예 - 비 하 - 신 고 향 집 에 돌 - 아 가

모 든 일 을 주 - 안 에 - 서 형 - 통 하 게 하 - 시 네  
주 의 손 을 굳 - 게 잡 - 고 찬 - 송 하 며 가 - 리 라  
아 버 지 의 품 - 안 에 - 서 영 - 원 토 록 살 - 리 라

## 66장 다 감사드리세

1. 다 감 사 드 리 세 은 맘 을 주 께 바 쳐  
2. 사 랑 의 하 나 님 언 제 나 께 게 계 려  
3. 감 사 와 찬 송 을 다 주 께 하 드 리 게 어

그 섭 리 블 라 워 은 세 상 기 빠 하 네  
기 뵈 과 평 화 의 복 내 리 주 씩 소 서  
저 은 곳 에 서 다 스 리 시 는 주 님

예 부 터 주 신 복 한 없 - 는 그 사 랑  
물 과 맘 병 들 은 때 는 헤 - 로 지 키 사  
영 원 한 하 나 님 다 경 - 배 하 여 라

선 물 로 주 시 네 이 제 와 영 원 히  
전 세 상 의 에 서 도 구 제 하 여 주 소 히

##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추석입니다. 어느 나라와 민족도 추수의 때를 감사하지 않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서가 말하는 ‘감사의 제사’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시편에 나오는 감사의 제사와 관련된 말씀들은 모두 ‘속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속죄의 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제사에 대해 말씀합니다. 두 마리의 염소가 성전 문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전해집니다. 첫 염소는 제단에서 잡아 피를 받고 제사장은 향로에 담은 향과 함께 지성소 안으로 들고 들어가 향연 속에 자신을 가리고 속죄소 동쪽 편에 한번, 전면에 일곱 번을 뿌립니다. 이때 백성은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전 밖에 일제히 엎드립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누구도 성소를 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염소 한 마리는 모든 회중이 보는 가운데 기쁨과 환호 가운데서 아사셀로 내보내 집니다. 대제사장은 성소 밖으로 나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백성들 앞에서 염소에게 안수함으로 백성들의 죄를 전가합니다. 염소는 계곡으로 둘러싸인 깊은 저지대 골짜기에 버려져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고 저 멀리 내던져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예식을 통해 구원의 기쁨과 환호가 백성들에게서 터져나옵니다. 백성들은 이 아사셀 염소가 그들을 떠나 갈 때 이제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됨으로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치 않으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아름다운 일의 단편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두 마리의 염소는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시고 우리의 죄과를 없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속죄의 과업은 이미 완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입술의 제사와 함께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의미 하는 바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십시오. ‘내 앞에 너의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오라. 너의 찬송을 높이 올려라!’

오늘 우리 주의 자녀들은 추석을 맞아 감사의 제사(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속죄를 위해 피 흘리는 제사나 금이나 은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입술의 찬송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 우리의 삶과 신앙에 그리고 이 추석 명절에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 추석 가정예배